

# 푸른 뱀의 해, 무한·영원의 복 기원하다

최근작 '너를 응원해'

## ●2025 세화전시 '을사청사'

광주·전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9명 작가들이 을사년을 맞아 저마다의 개성있는 필치로 푸른 뱀을 담아낸 작품을 선보인다. 오는 22일까지 복합예술공간 예술이백 그라운드(동구 구성로 204번길 1-1)에서 '을사청사(乙巳靑巳) - 푸른 뱀을 부적하라' 2025을사년 세화전이 진행된다.

새해 복을 바라고 액을 막고 싶은 우리 조상들의 소박한 소망을 담은 그림인 '세화'는 현대사회에서도 동일한 역할을 한다.

이번 전시에는 코로나 이후 국가적 재난 등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위로와 소소한 복을 전하는 다채로운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9명의 작가들은 회화, 드로잉, 도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다산과 풍요, 무한과 영원의 복을 상징하는 푸른뱀을 표현했다.

그중에서도 '푸른뱀'과 관련한 작가들의 스토리텔링에 눈길이 간다. 정정임 작가는 자신의 작업실 풀밭에

자주 출몰하는 뱀이 무서워 피하고 쫓아 내기를 반복했지만, 마치 제 집에 오듯 유유자적한 모습을 보고 그 순간 붓을 들어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이후 뱀은 무섭지 않았고 동거인처럼 자연스러운 친구가 돼 당당히 작가의 그림 소재가 됐다. 특유의 화려한 칼라로 그려낸 뱀은 더욱 매력적인 분위기를 연출해낸다.

이호국 작가의 드로잉에는 그림의 위트와 유머가 투영돼 있다. 뱀과 인간의 밀당을 일상 모습에서 그려낸 듯한 드로

잉은 자연스러운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고슴도치 작가로 잘 알려져 있는 한갑수 작가의 도자 작품은 뾰족한 가시의 고슴도치를 품은 뱀을 형상화했다. 날카로운 가시 탓에 물리칠 수도 다가갈 수도 없이 위태롭지만 푸른 뱀은 그 뾰족함을 온몸으로 견뎌내며 또아리를 틀고 무한한 세상의 영원을 기원한다.

이밖에도 전시에서는 알록달록한 뱀 형상을 통해 '2025'를 형상화한 최근일 작가, 화려한 문양과 어우러진 뱀을 나

타낸 임수영 작가, 꽃밭의 뱀을 담아낸 박해경 작가, 보석을 두른 뱀으로 빛나는 한해를 기원하는 정순아 작가, 뱀을 연상시키는 강렬한 색상의 오일 페인팅 작업을 선보이는 진하 작가, 이브의 사과와 함께 뱀을 등장시킨 박성희 작가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

전시 오프닝은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다. 9명 작가의 푸른뱀 부적과 다양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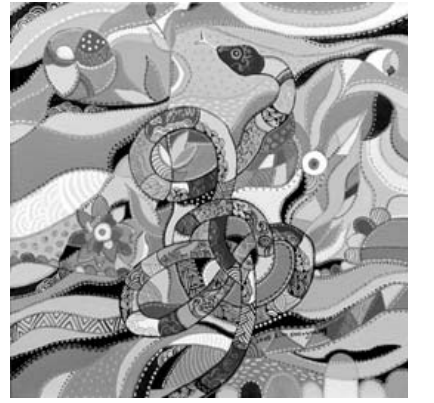
먹거리가 어우러진 행사로, 뮤지션을 초청해 음악과 그림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어린이, 어른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오는 14일에는 9명의 작가들이 준비한 캔버스, 물감, 크레파스 등으로 자기만의 뱀을 그려보는 드로잉 체험이 진행된

◀'을사청사(乙巳靑巳) - 푸른 뱀을 부적하라' 2025 을사년 세화전이 오는 22일까지 복합예술공간 예술이백그라운드에서 진행된다.

사진은 왼쪽부터 정순아작 '올해 당신이 제일 빛날거야' 이호국작 '야호 집어랏' 한갑수작 '사민월애' 임수영작 'From the daily life'



다. 18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에는 오방색 떡국을 끓여내는 화가 요리사의 맛있는 점심, 에피타이저와 함께 그림을 감상해 볼 수 있다. 고유의 오방색이 지닌 의미를 그림으로 해석해보며 그림 속 인물철학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이다.

이당금 예술이백그라운드 대표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목숨을 잃은 179명 희생자들의 명복을 기원하며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에게도 위안을 전한다"며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며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안부를 기원할 수 있는 전시를 마련했다. 을사년 국가적 재난의 액을 멀고 소소한 복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 학술·예술·실천적 관점에서 바라본 '외로움'

18일 동곡뮤지엄서 이탈리아 파빌리온 연계 포럼 작가 레베카 모치아 화상플랫폼 통해 대담 참여도

동곡미술관이 오는 18일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이탈리아 파빌리온 '외로움의 지형학' 전시 연계 학술 포럼을 연다.

정소희 큐레이터가 기획한 이번 포럼에는 유승규(안무서운회사 대표), 김효진(WISH BUILDER 대표), 백희정(광주시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책임자), 서영석(연세대 교수), 최은수(고려대 교수)가 참여한다.

포럼은 도시화, 경쟁 중심 문화 등으로 심화되는 '외로움' 양상 가운데 특히 청년층이 경험하는 외로움 문제에

주목한다. 한국 청년 외로움 양상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지원과 심리학적 개입 방안 등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대담 형식으로 진행되는 포럼에서는 전시 참여 작가인 레베카 모치아가 화상회의 플랫폼(ZOOM)을 통해 국제적 시각에서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한다.

포럼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향후 출판물로 발행돼 보다 넓은 범위에서 외로움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공감을 확산할 계획이다.

정소희 큐레이터는 "이번 포럼은 현



동곡미술관이 오는 18일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이탈리아 파빌리온 '외로움의 지형학' 전시 연계 학술 포럼을 연다. 사진은 이탈리아 파빌리온 '외로움의 지형학' 전시 전경.

대 사회에서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갖는 의미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전문가 및 청중과 함께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현 보문복지재단 이사장은 "복

지 사각지대를 밝히고 문화예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럼 사전 등록 및 문의는 동곡뮤지엄(062-945-0070)으로 하면 된다.

/최명진 기자

## '삽질과 디깅'...신진 연구자 협업 연구 공유회

오늘 광주시립미술관 로비

지역 신진 연구자들의 창의적 협업과 탐구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 공유회가 마련됐다.

10일 오후 4시 광주시립미술관 로비에서 진행되는 공유회 '삽질과 디깅'이다.

좋아하는 분야를 파고든다는 신조어 디깅(digging)은 지역 미술 연구의 출발점이었지만, 무언가를 파고들다 뒤를 돌아보면 때로는 현실성 없는 삽질이기도 하다. '파고든다'는 뜻을 지닌 두 개의 다른 단어 '삽질과 디깅'을 오가는 연구 과정을 통해 어렵지만 한 동시대의 지역성에 대한 생각을 관객들과 공유하는 자리다.



미술관은 지난 한 달 동안 신진연구자들의 협업 워크숍을 통해 지역 미술의 유익한 키워드를 발굴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한 달간 집중적으로 진행된 연구 워크숍 과정을 선보이고, 각 연구원이 흥미를 갖고 파헤쳐본 주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다.

워크숍에는 광주 예술모임 바림 디렉터 강인형과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3명의 신진연구자 백인우, 손진경, 전우주가 참여했다.

/최명진 기자

# CBS가 한국교회와 함께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환경주일 목회서신·공동기도문> 채택
-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캠페인 확산
- 기후난민공동체 지원 사업 전개
-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생태보존 교육 실시

CBS, (사)푸른아시아, 한국교회 15개 주요 교단, 환경부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운동본부 출범' 2022. 4. 26

